

지난 8월 개장한 광화문광장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한마디로 광장이 몸살을 앓고 있다. 개장 이래 하루가 멀다 하고 온갖 잡스런 행사들이 이어지더니 급기야 스노보드 대회까지 치러졌다. 아파트 13층 높이인 34미터 높이의 점프대를 만들어 일회용인 '2009 스노보드 밖에' 경기가 열린 것이다.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이 대회를 두고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어느 나라의 광장에도 이토록 소란스럽고 난장 같은 광장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다.

사람마다 인격이 다르듯이 도시에는 도시마다 다양한 표정이 있고 특히 광장은 도시민의 독특한 정서를 나타낸다. 따라서 광장의 역할에 따라 도시의 경쟁력이 달라지고 품격이 드러난다. 사람이 떠나도 지을 수 없는 흔적이 남는 곳이다. 스쳐 지나갈 때마다 한 조각 추억이 묻어나는 곳. 살아온 600년 세월의 두께만큼 광화문은 세대를 이어가며 우리의 이야기를 전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

광화문광장은 본래 옛 세종로 관창가의 옛 모습인 육조(六曹)거리를 되살리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과거의 전통을 현대에 되살려 국가의 상징거리로서의 의미를 구현하고자 했다. 그러나 작금의 광장은 멋진 디자인은 고사하고 돌바닥 위에 온갖 이벤트를 천막과 분수, 해피한 햇빛 가리개 따위의 인위적인 설치물들로 넘쳐난다.



불자 세상보기

이강렬
 극작가 · 한국문인협회상임이사

정체성 비껴가는 광화문광장

오죽했으면 세계최대의 중앙분리대라고 까지 비하했을까. 그곳을 마치 넓은 보행통로처럼 만들어 놓고 불거리 운운하며 백화점식 이벤트 행사가 줄을 잇는다. 한마디로 어수선 그 자체이다.

그동안 광화문을 지날 때마다 좁아진 차선으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지만 시민광장이 만들어 졌다는데 위안하며 참아왔던 시민들의 불만이 점차 높아진다. 도심에 시민들이 가볍게 쉴 수 있는 광장다운 광장하나 없는 현실에 많은 예산을 들인 광화문광장 조차 마치 이벤트 행사장이

되어버려서야 되겠는가. 한마디로 원칙과 격조는 커녕 상설 이벤트 행사장으로 전락해버린 모습에 허탈하다. 전체적으로 조화나 여백의 멋이 담긴 도심 속 휴식공간과는 거리가 멀다.

전문가들조차 광장 내 시설물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조악하고 어설플 구조물에도가 무언가를 채워야한다는 조급함이 곳곳에 엿보인다. 광장 지하에는 곧 이순신장군 기념관인 '충무공 이야기'도 설치된다고 한다. '충무공이야기'는 세종대왕 전시관인 '세종이야기' 바로 옆에 둔

다고 한다. 충무공의 성장과정과 난중일기, 동시대와 후손의 평가 등 다양한 이야기를 첨단 디지털 기술과 아날로그 전시기법을 적절히 활용해서 스토리텔링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설명이다. 도대체 광장이 역사체험장인지 시민의 휴식공간인지 이도저도 아니면 이벤트행사장인지 속내를 드러내야한다.

한편으로 살림이 어려울 때는 사소한 집수리조차도 꺼리는 것이 우리네 생활방식이다. 정부도 연일 친 서민 정책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데, 서울시의 일천 억이 넘는 홍보예산으로 브랜드 마케팅에 몰두하고 있다.

<금강경>은 세상만사를 꿈, 허깨비, 물거품 같이 관(觀)하라고 가르친다. 만약 머리로는 최고의 이상을 추구하면서 알뜰한 아이디어나 괴로움이나 허명에 매달리면 도(道)와는 정반대의 길로 가는 것이라 한다. 삶이 팍팍한 서민들의 힘겨운 마음을 아우를 수 없을 때 온갖 화려한 치장이나 요술을 부려도 거긴 감동이 없다.

은행나무 그늘진 이전의 광화문 거리는 비록 빈약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친근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다. 지금이라도 과거 조상들의 미의식과 지혜를 빌어 본래의 계획대로 제대로 된 정체성 있는 광장으로 거듭나야 한다. 진정한 오늘에 사는 우리들의 의무이고 필요이다.

본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성보제자리 찾기 운동 확산을

43년만의 귀환. 1966년 발견된 석가탑 사리장엄구가 그 다음해 국립박물관으로 떠난 지 43년 만에 조계종으로 돌아왔다. 12월 17일 조계사로 이운되어 고품식을 병행했고 불교중앙박물관에 보관될 전망이다.

이 일은 단순히 하나의 성보가 불교계로 돌아왔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다. 문화재 유물 가운데서도 불교의 성보는 당연히 제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당연한 논리를 현실화 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본래의 자리를 떠나 박물관의 정원에 서 있는 탑과 부도가 얼마나 많은가?

문화재 당국으로부터 성보를 반환받는 문제는 어쩌면 쉬운 일일 수 있다. 문제는 사유화 된 성보들이 성보로서의 가치와 기능을 잃어버리고 골동품이나 장식물 취급을 받으며 전혀 어울리지 않은 곳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도량을 떠난 성보를 원래의 도량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노력에 시간과 재원을 투자할 사람은 흔치 않다.

이미 본래의 자리를 떠나 있는 성보들에 대한 정보는 충분치 않다. 문제는 반환을 위해 다각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긴단 단제가 없다는 것이다. 종단만 쳐다봐서는 안 될 일이다. 성보를 되찾아 오는 일은 불자들이 인식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때 성과를 낼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사안인 것이다. 석가탑 사리장엄구의 반환을 계기로 성보 제자리 찾기 운동이 확산되길 기대한다.

한 해가 저무는 시간 위에서

2009년의 끝자락에서 한 해를 되돌아본다. 올 한해 불교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조계종과 태고종의 수장이 바뀌었고 신성종단이 꾸준히 설립됐다. 지리산 실상사와 백양사에서 아난법석을 열어 우리시대 불교의 모습을 진지하게 진단하고 새로운 불교운동의 대안을 제시하는 뜨거운 토론의 자리가 있었다. 공공단체 등의 종교편향 사례와 강도는 작년 보다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불교계의 대응이 그만큼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된다.

되짚어 보면 2009년도 다사다난했다. 그런데 뭔가 허전하다. 한 해가 이렇게 저물어 버리면 상당히 아쉬움이 남을 것 같은 느낌이 강하다. 왜 그럴까? 아마 이 시점에 느끼는 허전함의 정체는 바로 '작년에도 그랬듯이...'일 것 같다. 2009년을 보내는 아쉬움의 대강들은 '미진한 어린이 청소년 포교', '수행풍토 조성'에 대한 구호는 시끄러워도 실행을 위한 대책은 별로 없었던 점, 겨울에 대한 승단 의식구조의 느슨함 등등 작년에 아쉬웠던 사항들이 올해도 그대로 아쉬움의 주제가 되어 버린 것이다.

그래서 연말을 보내면서 내년에 대한 커다란 희망이 솟구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현상유지나 하지는 생각이 앞서지는 지 모르겠다.

승구영신이란 바로 이런 쓸쓸한 기분을 털어 버리고 새로운 희망을 길어 올리는 것이 아닌가? 저무는 한 해를 바라보며, 한 생각 돌리던 우주법계가 불보살의 영도임을 깊은 호흡으로 실감한다.

현불만평 박구원

올한해 고마웠습니다 새해에도 깊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

따뜻한 문자 하나씩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중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회사총괄팀	www.hyunbul.com
FAX (02)737-0698	실시간뉴스팀	www.buddhanews.com
광고국 (02)2004-8213-7	불교포탈 부디피아	www.buddhapia.com
FAX (02)737-0696	쇼핑몰 연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사 : (054)634-3429
충청지사 : (043)732-5560	부산지사 : (051)632-0064
전북지사 : (063)910-8977	강원지사 : (033)744-3618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사부대중 테마칼럼

12월의 테마-유종의 미

나의 2009년 다이어리 제일 앞장엔 올해의 목표 3가지가 적혀 있다. 첫째는 중국어 능력시험 10급 통과. 아... 중국어학원 수강신청 후 5년 갔나? 시험준비를 위해 구입한 책만 10만원이 훌쩍 넘는다. 둘째는 남친 만들기. 아... 남친을 잡출음으로 만드는 거였으면 병마처럼 한 무대를 만들었을 거다. 후회만 남는 1·2번 목표는 내년으로 미루게 했지만, 세 번째는 올해 내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목표다. '월 1회 사랑 실천'. 3가지 목표 중 유일하게 내가 달성한 목표이기도 하다.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용돈을 모아 기부를 시작했다. 넉넉하지 않게 용돈을 받아쓰는 학생이었고 별도의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부 금액은 당연히 소액이었다. 처음에는 월 2000원을 장애인 센터에 기부했다. 소액기부를 가버어 보는 사람에게는 "남인도 어린이들은 2만 4000원에 노예로 팔려가 채식장에서 하루 종일 돌을 캐내는 일을 한다. 2만 4000원

작지만 큰 선물, 기부하는 연말되길

이런 아프리카의 굶주린 가족에게 매일 계란을 낳을 수 있는 닭을 한 마리 보낼 수 있다"고 말해주고 싶다. 당신이 생각하는 월 2000원은 생각보다 너무 큰 돈이다. (물론 금액이 좀더 크면 닭 대신 농사지를 수 있는 소를 보낼 수 있습니다.) 또, 꼭 돈을 써야만 기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요즘은 기부의 방식도 점차 진화하고 있다. 당신이 묵혀두는 신용카드의 포인트, 신나게 웹 서핑을 하다가 기부 아이콘 찾기로, 판매 금액의 일정 비율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기업의 물품 구매로, 이제는 쓰지 않는 물건을 보내는 방식으로... 너무나 다양한 방식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으니, 이제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등의 핑계는 그만두자. 사랑 나눔 기부는 단지 실천만 하면 되는 아주 쉬운 것이니까.

얼마 전 아프리카에서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한 달에 2000원씩 모아 24000원을 받은 단체에서 보내 글로, 내가 보낸 연소를 받아서 살고 있는 남편의 편지였다. 남편은 시커멓고 매우 말랐고 상태가 안 좋아 보였는데, 기부단체에서 보내준 유행이 지난 옷을 입고, 책가방을 들고, 후원금으로 보낸 가족 앞에서 사진을 찍었다. 편지의 내용

은 너무나 감동적이고 나를 부끄럽게 했다. 자신들이 지리엔 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 한다. 태어나서 한번도 이런 존경을 받아본 적이 없다. 나는 훌륭한 사람이 아니다. 루이비통, 프라다 등 명품 좋아하고, 외제차 좋아하고, 심지어 습관처럼 기부하고 있지만 그것조차 가끔은 허세였던 허영 덩어리인 내게 남편의 편지는 큰 충격이었다. 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니, 지금부터라도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얼굴 한번 본적 없는 지구 반대편의 아이들을 위해 후원자가 되는 것은 후원 받는 사람에게도 후회 없는 사람에게도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는 아름다운 일인 것 같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과, 나눔으로써 모두가 더욱 행복해 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당신의 2010년 DO LIST에 '기부나눔 실천'을 써 넣는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정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락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 안내

-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2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3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4 데이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5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6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7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8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 9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예)
- 10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11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 12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상당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천불·삼천불·만불·개금·탱화·금공·범종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목숨은 선택대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된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성화미술원 내 전시관 : 031)591-1022

휴대폰 : 011-302-1022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산 5-27번지
 성화미술원 공작대 불교전시관

주·야 상담 합니다

청동불 40여부 전시 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전시관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 [114도우미] 검색 → 114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